영상에서 가장 예시를 많이 들고 있으며, 동시에 AI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AI가 바로 ChatGPT라고 생각합니다. ChatGPT가 세상에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고, 마침 제가 가천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시기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GPT에 대한 언급이 많았고, 저 또한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GPT는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그때는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제가 “GPT가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실제로 코딩을 시켜보았을 때, 결과물은 겉보기엔 훌륭했지만 내부 코드는 지나치게 복잡했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AI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인간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결국 사람이 수정해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인간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반이 지난 지금, GPT의 성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코드의 효율성도 좋아졌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GPT가 사람보다 코딩을 더 잘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렇게 직접 체감하니, AI의 ‘학습’이 단순한 데이터 축적이 아니라 진화에 가까운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과 함께 이번 영상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AI의 학습 속도’가 얼마나 앞으로의 미래에서 중요한 요소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수십 년을 공부해야 전문가가 되지만, AI는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인간의 지식을 흡수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AI가 단순한 학습 단계를 넘어 이해의 단계로 가는 날(특이점)이 정말 멀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10년도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인간은 그리고 저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AI는 이미 대부분의 정보를 알고, 분석하며, 문제 해결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남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답을 제시한다면, 인간은 그 정답이 정말 ‘옳은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와 경쟁하기보다는 AI와 협력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변화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금 ai는 학습을 위주로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품질 좋은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인터넷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ai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취업에 ai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런 ai를 사용하는 법을 공부해야 하다는 걸 다시한번 알았습니다.